opusdei.org

5월 3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2019-5-27

루카의 복음. 1,39-56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묵상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성모님은 마치 우리의 교회 건물을 장식하는 성인들의 조각상 같이 움직임이 없고, 하늘을 보며 기도손을 하는...어느 일에나

서두름이 없이 침착하고 관상적인 여인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매우 다르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성모님은 "서둘러" 갔다고 전합니다. 비록 성모님께서 절대로 걱정이 없고 충동적이지 않은 확실히 관상적인 여인일지라도, 성모님께서는 행동의 여인이기도 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에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특별히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떤가요? 성모님의 가족의 경우는요? 만약 사람들이 요셉이 그들의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성모님은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탄생을 위한 준비는 어떤가요?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들보다도 성모님께서는 늙어서 잉태한 엘리사벳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촌인

엘리사벳을 돕기 위해 '서둘러' 출발하는 것 외에 성모님께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사벳을 도와주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성모님은 생각할 걱정거리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성모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필요에 의해 그곳에서 석달을 머무르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있는 그저 독실하고 기도에 열중하는 조각상 같은, 행동의 여인으로 슈퍼 히어로 같이 생각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시며 즉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시어 함께 계십니다. 설령 성모님의 사촌을 돕기 위해 '서둘러' 가셨는데...자녀인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더 빨리 오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제 곁으로 날아오시는 어머니를 알고 있는 것이 이 얼마나 편안한가요. 성모 마리아, 나의 어머니여 당신과 같은 어머니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 대영 요셉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5weol-31il-bogdoesin-dongjeong-mariayi-bangmun-cugil/ (2025-12-12)